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대중교통 운전기사 대상 음료 서비스 제공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병원 정문 앞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에서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시원한 얼음생수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송해주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노고와 무더위로 인한 온열병과 안전운전을 기원하고자 작은 행사를 펼치고 있다.

생수 나눔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 교직원들이 직접 생수를 나눠준다.

택시를 운행하는 김모 기사는 “무더운 날씨에 환한 웃음과 뜻밖의 얼음생수를 받으니 이 일이 새삼 보람이 느껴진다.”며, “시원한 물을 마시니 잠시나마 더위가 잊히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조성민 병원장은 “최근 폭염 때문에 지쳐있을 운전기사분들께 조금 이나마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항상 환자를 이송해주는 기사님 또한 우리 병원의 든든한 동반자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 직원 대상 수두, 홍역 항체 검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 8월 6일부터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두, 홍역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두와 홍역은 공기주의 감염성 질환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감염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병으로, 주로 4~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수두와 홍역에 대해 면역이 없는 사람이 직접 접촉했을 때 10명 중 9명이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감수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홍역과 수두에 대해 면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항체가 없다면 전파 가능한 동안에는 홍역, 수두에 걸린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면역력이 있더라도 위 질환의 환자를 접할 때는 N95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검진은 전 직원의 수두와 홍역에 대한 면역력 검사를 통해 항체가 없는 직원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으로부터 직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성인자원봉사자 보수교육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지난 19일, 본원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상반기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사와 연명의료의 이해, 정보보안교육 및 원내 활동 지침 등 이론과 기초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병원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수교육으로 개인 정보보안, 연명의료와 같이 한 번쯤은 고민할 만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봉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봉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다양한 교육으로 지역사회 나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

이비인후과 임윤성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평생 들어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설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난 4월에 22시간의 긴 수술과 3일의 중환자실 생활, 그리고 26일간의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로서 정말 많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수술과 치료를 담당해주셨던 임윤성 교수님을 비롯해 이비인후과 주치의 선생님들의 너무나도 섬세하고 상냥한 면담과 진찰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입원할 때 설암 4기라는 말에 퇴원은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설암 수술의 ‘명의’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교수님의 훌륭한 수술 덕분에 무사히 퇴원하고 차후 항암치료를 위해 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들은 입원을 결정하기 전 서울의 더 큰 병원에 가야할지 많은 고민도 했지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잘 선택했기에 현재 이렇게 좋은 결과와 과정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임윤성 교수님과 이비인후과 주치의 및 선생님, 간호사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